

일부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및 인식도 조사

김정희 · 유자혜

영동대학교 치위생학과

Knowledge, practice, and awareness toward oral health in the special school teachers

Jung-Hee Kim · JA-Hea Yo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ungdong University

Received : 11 July, 2014
Revised : 15 September, 2014
Accepted : 25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Ja-hea Yo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Youngdong University
310 Daehakro,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buk
370-701, Korea.
Tel : +82-43-740-1491
Fax : +82-43-740-1389
E-mail : yoojahea@yd.ac.kr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practice, and awareness toward oral health in the special school teachers.**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33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in Seoul, Gyeonggi-do, Chungbuk, and Jeonbuk.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2.0 for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post hoc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esults** : In oral health knowledge,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8.31 in comparison to 7.75 in male teachers($p < .05$). In oral health practice,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3.71 and that of male teachers was 3.69. In oral health awareness, the average score of female teachers was 4.12 and male teachers had 3.93. The teachers in special schools had a clos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ral health awareness and practice($r = .448, p < .05$).**Conclusions** : The teachers tended to have better knowledge of oral health but they did not practice the oral health behavior. The teachers have the important role in oral health management for the disabled children by providing the right toothbrushing method.**Key Words** : disabled children, awareness, knowledge, practice, special school teachers, oral health**색인** : 구강보건실천, 구강보건인식, 구강보건지식, 장애아동, 특수학교교사

서론

장애의 종류와 특성, 정도에 따라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강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치과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 진행 상태도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과 구강건강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구강을 신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작은 부분으로 인식하거나, 다른 부분의 더 큰 장애로 인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리 능력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구강질환 상태도 매우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적고,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의 부재, 예방치료 및 초기치료의 지연, 진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함 등이 장애인들의 구강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¹⁾. 장애인은 특정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므로 특히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JKSDH is available at <http://www.jksdh.or.kr/> pISSN 2287-1705 / eISSN 2288-2294

관리자 또는 보호자들을 훈련시키고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특수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단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한다면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²⁾. 따라서 장애아동에게는 비장애 아동에 비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³⁾.

학교구강보건은 공공보건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한 분야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이바지하며, 학교구강보건교육은 구강보건지식의 단순한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 수반되는 태도의 변화가 따라야 하고, 나아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행위로 이어져야 하며 학교를 떠나 사회인으로 환원된 이후로도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과 주위의 건강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⁴⁾. 학교 교육의 장에서 교사들의 태도 및 행동이 학생들에게 모범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구강보건에 관한 태도 및 행동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구강보건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라 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생활을 하며 학생의 구강건강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므로⁵⁾,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및 인식도는 장애아동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및 실천이 장애아동의 구강건강관리의 태도와 습관을 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및 구강보건인식에 대해 파악하여 특수학교 재학생들에게 구강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부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등기우편으로 회수한 결과 총 135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13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는 황⁶⁾과 김⁷⁾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

용은 일반적 사항 9문항, 치아우식증, 치주병, 불소에 관련된 구강보건지식 10문항, 칫솔질, 보조구강위생용품, 식이조절, 스케일링 등의 구강보건실천 10문항,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인식 10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강보건지식은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구강보건실천 및 인식의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인식과 실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실천의 Cronbach' α =0.830, 구강보건인식의 Cronbach' α =0.842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3.1%, 여성이 66.9%이었으며, 연령은 35-39세가 19.5%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62.4%, 특수교육 경력은 10-15년이 28.6%로 가장 많았다. 근무과정은 초등학교 30.1%, 중학교 24.8%, 고등학교 24.1%로 조사되었고, 재직기관유형은 사립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은 중소지역 57.1%, 특별시 및 광역시 40.6%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교사가 78.9%이었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받아본 적 없다' 54.1%, '받아본 적 있다' 45.9%로 조사되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여성이 8.31, 남성은 7.75로 여성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8.25, 미혼 8.08, 이혼 및 사별 7.30순이었으며, 연령에 따라 35-39세 8.62, 30-34세 8.32, 40-44세 8.06순이었고, 45-49세가 7.70으로 구강보건지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이 8.45로 가장 높았고, 15-20년이 7.71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은 기타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8.7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7.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직기관유형에 따라 공립학교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lassifications		N	%
Sex	Male	44	33.1
	Female	89	66.9
Age	>30	22	16.5
	30-34	22	16.5
	35-39	26	19.5
	40-44	18	13.5
	45-49	23	17.3
	50≤	22	16.5
Marital status	Marries	83	62.4
	Single	40	30.1
	Divorce or bereavement	10	7.5
Education career	>5	29	21.8
	5-10	26	19.5
	10-15	38	28.6
	15-20	14	10.5
	20<	26	19.5
Working process	Elementary	40	30.1
	Middle school	33	24.8
	High school	32	24.1
	The others	28	21.0
Work institution	National	16	12.0
	Public	39	29.3
	Private	78	58.7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40.6
	Medium and small region	76	57.1
	Rural community	3	2.3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s	105	78.9
	The others	28	21.1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45.9
	No	72	54.1
Total		133	100.0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지식평균은 8.51, 사립은 8.17, 국립은 7.00이었으며, 재직기관 유형에 따라 구강보건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지역별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지식평균은 9.33, 중소지역 8.24, 특별시 및 광역시 7.91순이었고, 교사자격에 따라 기타 교사는 8.36, 특수교사는 8.07이었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라 교육경험이 '있다' 8.56, '없다' 7.76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여성이 3.71, 남성은 3.69로 여성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이혼 및 사별 3.82, 기혼 3.72, 미혼 3.65순이었으며, 연령에 따라 30-34세 3.86, 35-39세 3.79, 45-49세 3.73순이었으며, 30세미만과

40-44세는 3.55로 구강보건실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경력에 따라 15-20년 4.00, 5-10년 3.74, 20년 이상 3.73순이었고, 5년 미만이 3.55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에 따른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중학교 교사가 3.93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3.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재직기관유형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3.83, 국립 3.78, 사립 3.63순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3.80, 읍면지역 3.66, 중소지역 3.64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교사 3.80, 기타 교사는 3.39로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교사는 3.72, 경험이 있는 교사는 3.70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7.75±1.79	-1.926
	Female	89	8.31±1.48	(0.056)
Marital status	Marries	83	8.25±1.59	1.615
	Single	40	8.08±1.43	(0.203)
	Divorce or bereavement	10	7.30±2.21	
Age	>30	22	8.00±1.38	
	30-34	22	8.32±1.93	
	35-39	26	8.62±1.41	0.934
	40-44	18	8.06±1.73	(0.461)
	45-49	23	7.70±1.57	
Education career	50≤	22	8.00±1.60	
	>5	29	8.45±1.32	
	5-10	26	8.04±2.02	0.751
	10-15	38	8.26±1.46	(0.559)
	15-20	14	7.71±1.54	
Working process	20<	26	7.88±1.68	
	Elementary	40	7.78±1.68	
	Middle school	33	8.36±1.34	2.627
	High school	32	7.81±1.78	(0.053)
Work institution	The others	28	8.71±1.41	
	National	16	7.00±2.00 ^a	5.424
	Public	39	8.51±1.46 ^b	(0.005 [*])
	Private	78	8.17±1.49 ^b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7.91±1.90	1.540
	Medium and small region	76	8.24±1.35	(0.218)
	Rural community	3	9.33±1.15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	105	8.07±1.62	0.849
	The others	28	8.36±1.57	(0.397)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8.56±1.29	2.990
	No	72	7.76±1.75	(0.004 [*])
Total		133	8.13±1.60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 = 0.05$

^{*}p<.05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높았으며(p<.05), 결혼여부에 따라 기혼 4.13, 미혼 3.94, 이혼 및 사별 3.83 순이었고, 연령에 따라 35-39세 4.13, 45-49세 4.09, 50세 이상 4.08, 30-34세 4.05순이었으며, 30세미만이 3.93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경력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3.90으로 가장 낮았으며, 근무과정은 중학교 4.11, 고등학교 4.08, 기타 4.04, 초등학교 3.99 순이었다. 재직기관유형에 따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4.13, 사립 4.05, 국립 3.88 순이었고, 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4.10, 중소지

역 4.03, 읍면지역 3.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격사항은 특수 교사 4.12, 기타 교사는 3.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는 4.06, 경험이 없는 교사는 4.04로 조사되었다(Table 4).

5.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448, p<.01)(Table 5).

Table 3. Oral health practice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3.69±.50	-.187 (0.852)
	Female	89	3.71±.62	
Marital status	Marries	83	3.72±.59	0.398 (0.673)
	Single	40	3.65±.60	
	Divorce or bereavement	10	3.82±.43	
Age	>30	22	3.55±.55	1.001 (0.420)
	30-34	22	3.86±.68	
	35-39	26	3.79±.57	
	40-44	18	3.55±.59	
	45-49	23	3.73±.52	
Education career	50≤	22	3.71±.57	1.456 (0.219)
	>5	29	3.55±.51	
	5-10	26	3.74±.61	
	10-15	38	3.68±.64	
	15-20	14	4.00±.46	
Working process	20<	26	3.73±.56	3.257 (0.024*)
	Elementary	40	3.52±.55 ^a	
	Middle school	33	3.93±.53 ^b	
	High school	32	3.72±.58 ^{a,b}	
Work institution	The others	28	3.70±.62 ^{a,b}	1.666 (0.193)
	National	16	3.78±.24	
	Public	39	3.83±.71	
	Private	78	3.63±.55	
Area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3.80±.57	1.279 (0.282)
	Medium and small region	76	3.64±.60	
	Rural community	3	3.66±.11	
Qualification	Special instructor	105	3.80±.59	-3.36 (0.001**)
	The others	28	3.39±.43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Yes	61	3.70±.63	-.204 (.839)
	No	72	3.72±.54	
Total		133	3.71±.58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 = 0.05$

* p<.05, ** p<.01

총괄 및 고안

장애아동들의 구강보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능적, 정신적 장애 및 특수 생활환경 등으로 정상인 보다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쉬운 조건이고, 치료를 받기 힘든 여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에 따라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과 잇솔질방법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⁶⁾. 이 등⁸⁾의 연구에서는 보호자, 담임교사 및 생활 재할교사 등을 교육하므로 좋은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Udin과 Kuster⁹⁾는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하 등³⁾의 연구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칫솔

질을 도와주거나 지도하고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수학교의 66%에서 칫솔질 교육 등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들은 많은 시간을 교사와 보내고 있으므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 및 구강보건인식을 파악하여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복지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박과 조¹⁰⁾의 연구결과 구강보건지식 평균이 100점 만점에 46.4로 매우 낮았으며, 장과 김⁹⁾, 황⁶⁾의 연구결과는 비슷하게 구강보건지식 평균이 각각 74.8, 71.8이었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¹¹⁾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지식 및 관리 행동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

Table 4. Oral health awareness mea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lassifications		N	Mean±SD	t/F(p-value)
Sex	Male	44	3.93±.47	-2.005 (.047*)
	Female	89	4.12±.54	
Marital status	Marries	83	4.13±.54	2.838 (0.062)
	Single	40	3.94±.50	
	Divorce or bereavement	10	3.83±.38	
Age	>30	22	3.93±.50	0.419 (0.835)
	30-34	22	4.05±.57	
	35-39	26	4.13±.56	
	40-44	18	4.00±.51	
	45-49	23	4.09±.50	
Education career	50≤	22	4.08±.54	1.239 (0.298)
	>5	29	3.90±.44	
	5-10	26	4.02±.57	
	10-15	38	4.07±.51	
	15-20	14	4.26±.59	
Working process	20<	26	4.10±.53	0.366 (0.778)
	Elementary	40	3.99±.58	
	Middle school	33	4.11±.49	
	High school	32	4.08±.52	
Work institution	The others	28	4.04±.51	1.197 (0.305)
	National	16	3.88±.19	
	Public	39	4.13±.62	
Area	Private	78	4.05±.52	1.174 (0.312)
	Metropolitan or megalopolis	54	4.10±.51	
	Medium and small region	76	4.03±.54	
Qualification	Rural community	3	3.63±.15	-3.159 (0.002**)
	Special instructor	105	4.12±.53	
Oral health educational experience	The others	28	3.78±.43	.278 (.781)
	Yes	61	4.06±.52	
	No	72	4.04±.54	
Total		133	4.05±.53	

p-value is calculated by t-test or one-way ANOVA

*p<.05, **p<.01

Table 5. Correlation among knowledge, practice, and awareness about oral health

	Knowledge	Practice	Awareness
Knowledge	1		
Practice	.022	1	
Awareness	.124	.448**	1

**p<.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나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10점 만점에 8.07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구결과보다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지식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장과 황¹²⁾의 연구결과에서 치주질환별 구강보건지식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불소지식별 구강보건지식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8.56으로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 7.76보다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p<.05)를 보여, 특수학교 교사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장애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장애아동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수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칫솔질 방법, 식후 칫솔질 실태, 구강위생용품 사용 및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에 대한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5점 만점에 여성이 3.71, 남성은 3.69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나, 김 등¹³⁾의 초등학교 구강보건행동에 관한 연구와 최 등¹⁴⁾의 중·고등학교 구강보건지식·태도·행동 및 교육요구도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권 등¹⁵⁾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 등¹⁶⁾의 연구에서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실천정도가 높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김⁷⁾의 치과내원환자의 구강보건지식, 인식, 실천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구강보건실천 평균이 100점 만점에 65.6이었으며, 칫솔질, 구강위생용품사용 여부,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 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칫솔질에 대한 실천정도가 다른 문항보다 높은 것은 칫솔질에 대한 중요성과 보편적인 내용으로 교육되어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실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스케일링 실행은 필요성 및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징에 따른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5점 만점에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류 등¹⁷⁾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구강보건인식 및 실천이 높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⁷⁾의 치과내원환자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인식, 실천에서의 연구결과는 구강보건인식 평균이 100점 만점에 80.2, 고 등¹⁶⁾의 연구에서 치주질환 예방에 관한 인식에서 칫솔질 치주질환 예방효과 인지자율이 72.5로 구강보건인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및 근무경력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 등¹⁸⁾의 서울시 보건교사의 구강보건인식도 연구결과에서는 연령,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구강보건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35-39세 4.13, 45-49세 4.09, 50세 이상 4.08, 30-34세 4.05 순이었으며, 교육경력에 따라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3.90으로 가장 낮았지만 구강보건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은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에 대한 평균도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구강보건에 대한 실천은 인식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지는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제적으로 실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이나 구강건강에 대해 얼마만큼 인식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장애아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도와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수교사들도 구강보건 실천을 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 간의 상관관

계 분석에서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48$, $p<.01$). 이는 구강보건지식이 인식과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구강보건에 대해 인식을 하면 구강보건실천도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등¹⁴⁾의 연구에서는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윤 등¹⁹⁾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실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고 있는 지식이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는 무엇보다 정확한 지식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강보건지식과 인식, 실천에서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지식이 있어야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으므로 구강보건지식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지식은 습득하여 구강보건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실천적 행동의 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단순 지식습득이 아닌 실천이 가능하도록 구강보건교육 매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점을 보완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지역의 특수학교 재직 중인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 실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여성이 8.31, 남성은 7.75로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35-39세가 8.62로 구강보건지식이 가장 높았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이 8.45로 가장 높았고, 15-20년이 7.71로 가장 낮았다. 근무과정은 기타교사 8.71, 초등학교 교사가 7.78로 나타났고, 재직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본 경험에 따라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2. 구강보건실천 평균은 여성이 3.71, 남성은 3.69로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30-34세 3.8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과정과 자격사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3. 구강보건인식 평균은 여성 4.12, 남성 3.93으로 여성이 높았으며($p < .05$), 연령에 따라 35-39세 4.13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경력은 15-20년이 4.26으로 가장 높았고, 근무과정은 중학교 4.11로 가장 높았다. 자격사항은 특수교사 4.12, 기타교사는 3.78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4.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48, p < .01$).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특수학교 교사들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았고 구강보건실천과 구강보건인식 또한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구강보건인식은 높은 반면 구강보건실천이 낮은 편이었고, 남성의 경우는 구강보건인식과 구강보건실천 모두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특수학교 장애아동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의 구강위생 상태를 유지,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매체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Kwon HM, Kim KS, Kim RY, Kim MJ, Kim SA, Kim YS, et al. Community Dental Hygiene. Seoul: DaehanNarae Publishing; 2012: 262-3.
2. Jang SJ, Kim HJ. A study on the dental knowledge and awarenes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38-44.
3. Ha SY, Lee KH, Kim DE, Park JS. Oral health care status in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people in Korea.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00; 27(2): 192-201.
4. Kim YH, Kang CY, Kwak MS, Koo JY, Kook DH, Kwon J, et al. Public health. Seoul: Hyunmoonsa; 2010: 417-23.
5. Lee SK, Chung DI, Roh YH, Chang KW.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statu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Chonju-city.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4; 18(2): 410-25.
6. Hwang YJ. A study on the oral knowledge and the perception for oral health education of teachers in special schools[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2008.
7. Kim HR. Knowledge, cognition and practice on oral health care of the clients visiting dental clinic [Master's thesis]. Gimhae: Univ. of Inje, 2011.
8. Lee KH, Kim DE, Ha SY, Park JS. Oral health care status in institutions and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people in Korea.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00; 27(2): 192-201.
9. Udin RD, Kuster CG. The influence of motivation on a plaque control program for handicapped children. *J Am Dent Assoc* 1984; 109: 591-3.
10. Park GH, Cho MS.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of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teachers in Gimhae. *J Acad-Indus Tech* 2011; 12(12): 5700-8.
11. Kim HK. Teacher about study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oral health[Master's thesis]. Seoul: Univ. of Yonsei, 1986.
12. Jang KA, Hwang IC.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knowledge and its education recognizance of childcare teacher. *J Korea Cont Soc* 2009; 12: 735-41.
13. Kim JS, Kang EJ, Choi MH. A study on oral health knowledge and oral health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some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3): 523-30.
14. Choi HS, Hwang SH, Ahn SY, Sim SH, Choi BK, Kong YM, et al. Oral health knowledge, attitude, behavior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needs for oral health educa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4): 533-46.
15. Kwun HS, Lee EG, Cho GS. Research on the status of children's dental health following mothers' dent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09; 9(4): 670-84.
16. Ko SY, Moon HS, Kim JB, Paik DI. A study on the knowledge, opinions and practices about oral health of worker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1999; 23(2): 95-111.
17. Ryu DY, Song KS, Bae SM. A study on awareness and practice about the oral health of workers.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6): 1071-81.
18. Lee SM, Lim MH, Jung JY, Hwang YS, Kim SH. Recognition and performance of preschool teachers on children oral health in Seoul.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3): 449-57.
19. Yoon HS, Kim JB, Chun JH.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of school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in a WHO healthy city, Changwon. *J Korean Acad Dent Hyg Edu* 2010; 10(1): 51-62.